

『일반언어학 노트』: 기호에서 가치로

-텍스트 없는 텍스트성과 텍스트성 없는 텍스트 간의 긴장-

최용호*

1. 『일반언어학 노트』

‘제네바에서 다시 찾은 수고’

2001년 6월 23일자 제네바 한 일간 신문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이다. 『소쉬르 사후 1세기』란 주제로, 같은 해 같은 달 23일에서 27일까지 닷새 동안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아르샹 두 곳에서 동시에 개최된 소쉬르 국제학술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 기획된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특집에 「소쉬르의 보고」, 「천재 언어학자는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다」, 「선구적인 영혼」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게재되어 있다. ‘제네바에서 다시 찾은 수고’란 그동안 학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소쉬르의 한 자필 원고를 가리킨다.

주지하다시피 소쉬르는 제네바 대학에서 1906년에서 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반언어학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다. 소쉬르 사후 그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발리Charles Bally와 세쉴Albert Sechehaye는 이 강의의 강의록과 학생들의 노트를 바탕으로 1916년에, 20세기 언어학뿐

* 이 논문은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교수 연구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5-A00191).

** 한국의국어대학교 불어과

만 아니라 인문학 사상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일반언어학 강의』를 출간한다. 소쉬르는 이 유명한 세 차례 - 1906-1907, 1908-1909, 1910-1911 - 의 강의를 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일반언어학에 관한 한 권의 책을 구상하고 있었다. 1894년 1월 4일 그의 제자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프랑스 언어학자 앙투안 메이에Antoine Meillet에게 쓴 한 편지에서 우리는 일반언어학에 대한 그의 생각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그의 동료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용어도 언어학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무런 열의나 열정’도 없이 설명하게 될 ‘한 권의 책’을 구상하고 있음을 밝힌다.¹⁾ 이 책에 대한 그의 이러한 구상은 그동안 생각에만 머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제네바 신문에 게재된 ‘제네바에서 다시 찾은 수고’란 제목의 특집기사는 바로 이러한 통설이 오류일 수 있음을 일깨운다. 우리는 소쉬르가 최소한 1890년대부터 구상하기 시작한, 일반언어학에 관한 한 권의 책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한 노트의 일부를 제네바 소재, 오랑주리라고 불리는 그의 저택의 한 별채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 노트는 2002년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루돌프 앵글러Roudolf Engler와 시몬 부께Simon Bouquet에 의해, 그동안 소개된 소쉬르의 자필 원고들과 함께 『일반언어학 노트 *Ecrits de linguistique générale*』란 제목으로 출간된다. 소쉬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지만 소쉬르가 쓴 것이 아닌 『강의』와 달리 이 『노트』는 소쉬르가 직접 쓴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곧바로 7편의 서평이 나왔다.²⁾ 도미니크 앙투완 그리소니Dominique-Antoine Grisoni(2002)는 서평에서, 이 책에서 스승의 사고에 대한 ‘왜곡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소쉬르 탄생 150주년이자 일반언어학 제 1차 강의가

1) CFS 21(1964), p.95.

2) Chevalier(2002), Droit(2002), Jannoud(2002), Grisoni(2002), Leclair(2001), Maggiorie(2002), Martinoir(2002).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또한 소쉬르 문헌학의 역사를 연 로베르 고델Robert Godel의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수고 원자료』가 출간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2007년에는 『소쉬르의 혁명 일반언어학 100년』³⁾이란 주제로 소쉬르 국제학술대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소쉬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런 열의나 열정도 없이’ 써 내려간 이 『노트』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히 열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의 밑바탕에는 진실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다시 찾은 수고’라는 다소 몽상적인 제목이 부추기는, 소쉬르의 ‘참된’(Jäger 1976) 사고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빠져 있다. 이러한 유혹이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강의』의 원자료가 아니라 소쉬르의 자필 원고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고델의 『수고 원자료』와 앵글러의 『비판본』(1967-1974)은 대개 학생들의 노트를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것에 다름 아니다. 오랑주리에서 발견된 100여 쪽의, 「언어의 이중적 본성La double nature du langage」이란 제목의 원고는 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자료이다. 프랑수와 라스티에 François Rastier는 ‘요컨대, 소쉬르에 의해 매우 드물게 출간된 작품들을 제외한다면 수고만이 작업이 가능한, 유일하게 참된 문서이며 학생들의 노트나 『강의』는 부차적이고 보충적인 자료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Rastier 2006). 비록 소쉬르의 참된 사고를 밝혀낼 수 있다고 아직 단언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제 소쉬르의 참된 문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유혹인 이유는 소쉬르가 자신의 자필 원고 속에서 여전히 저자로서의 역할을 유보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격언 풍의 문체로 수놓은 그의 텍스트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으며, 미완성된 문장이나 생략된 - 가장

3) www.saussure.ch 참조

기대되는 부분에 등장하는 - 표현은 텍스트의 잃어버린 고리로 머물러 있다. 우리는 소쉬르를 읽으면서 이 잃어버린 고리를 나름대로 채워 넣고자 하는, 바뀌 말해 소쉬르를 다시 쓰고자 하는 유혹을 쉽게 저버릴 수 없다. 한마디로 해석을 거치지 않고 소쉬르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해 보인다. 『강의』의 편집자들을 난감하게 만든, ‘원래의 모습대로 출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즉 ‘자유로운 강의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말의 반복과 중복, 가변적인 표현’(『강의』, xiii) 등이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의 구두 강의를 아닌 그의 글쓰기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텍스트의 단순한 작성자로서 소쉬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저자가 텍스트에 텍스트성을 부여하는 존재라면 이러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소쉬르는 이러한 존재의 역할을 오히려 독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에게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소쉬르를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소쉬르 텍스트에는 이처럼 다른 언어학자들에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해석학적 문제가 놓여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텍스트와 텍스트성의 변증법이란 주제로 풀어가하고자 한다. 텍스트성을 알기 위해서는 텍스트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의 문제가 소쉬르 읽기에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러한 변증법을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쉬르 텍스트로의 회귀이다. 그런데 방금 지적했듯이 텍스트가 텍스트답기 위해서는 텍스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1996)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실재 저자로서의 소쉬르가 아니라 최소한 텍스트성을 담보하는 저자 모델로서의 소쉬르를 전제해야 한다.

이 텍스트성에 대한 우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소쉬르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규정하는 것은 소쉬르 사고의 현대성, 즉 극단적 현대성

이라는 것이다. 2007년 소쉬르 국제학술대회 주제이기도한 ‘소쉬르 혁명’은 바로 이러한 극단적 현대성을 재정의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라스티에가 역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바대로 ‘진정한 회귀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Rastier 2006). 다시 말해 소쉬르 텍스트로 돌아가 텍스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소쉬르 문헌학자 분데를리Peter Wunderli는 ‘소쉬르가 여전히 논쟁의 핵심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Wunderli 1982:121). 소쉬르의 사고는 논쟁 속에, 대화적 맥락 속에 그 윤곽을 드러낸다. 소쉬르의 텍스트는 저자에 의해 닫혀진 텍스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독자에게 열린 텍스트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소쉬르 텍스트를 현대성이 제기하는 대화적 맥락 속에 갖다 놓고자 한다. 우리가 여기서 제안하는 대화의 주제는 소쉬르의 기호학 개념이다. 우리는 특별히 이 개념을 ‘기호에서 가치’로한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가치 개념은 분명 기호학사적 관점에서 인식론적 단절을 요구하는 혁명적 차원을 담지하고 있다. 푸에슈Christian Puech는 이러한 중심의 이동 - 기호에서 가치로의 - 이, 『노트』의 출간 이후 소쉬르 사상의 새로운 전망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담화의 이론’으로 향하는 길임을 시사한 바 있다(Puech 2005:105).⁴⁾ 『강의』에 대한 긴 서평에서 세쉴레는 이미 소쉬르 언어기호학의 핵심 사상이 다름 아닌 바로 이 가치 개념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Sechehaye 1917(1978):186-96). 사실이 개념은 당시 『강의』의 서평을 쓴 대부분의 저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이기도 하다.⁵⁾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 가치 개념은 구조음운론의 음운 자질 분석과 구조의미론의 의소분석의 방법론적 토대가 된다.

4) 소쉬르의 담화 이론은 『랑가주Langages』 159호(2005년 9월)에서 『소쉬르에서 출발한 언어학과 담화의 시학』란 제목 하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5) 푸에슈에 따르면 “의미심장하게 아마도 세쉴레(『강의』 편집자인)가 소쉬르의 새로움을 가장 잘 평가했다. 그는 최초로 당시 서평들에서 외면당한 개념의 총체, 즉 가치 - 차이 - 대립 - 상대적 자의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Puech 2005:96).

푸에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개념을, ‘담화 의미론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로 재평가한다(Puech 2005:109). 구조주의적 패러다임 속에서 가치란 체계 속에서의 가치를 가리킨다. 푸에슈가 전망한 ‘담화 의미론’에서 가치란 담화 속에서의 가치이다. 우리는 『노트』에서, 체계에서 담화로의 이러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쉬르의 기호학 사상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이처럼 구조주의와 맥락주의를 동시에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과연 소쉬르의 기호학 사상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노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나아가 텍스트 의미론이 기대고 있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소쉬르의 전통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구조의미론의 의소분석 방법론을 랑그뽀만 아니라 텍스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텍스트 의미론은 소쉬르의 가치 개념을 재평가하는 데 유익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작업은 소쉬르주의와 텍스트 의미론 간의 영향사적인 관계 구축이 아니라 소쉬르 텍스트에 텍스트성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하는 해석학적 노력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텍스트 없는 텍스트성과 텍스트성 없는 텍스트 간의 긴장
- 소쉬르의 기호학 개념: 기호에서 가치로
- 텍스트 의미론과 소쉬르의 새로운 전통: 물질적 해석학

2. 텍스트 없는 텍스트성과 텍스트성 없는 텍스트와의 긴장

구조주의자 소쉬르를 중심으로 칼 헬트Karl Held와 수잔 뎀Susann

Mumm 사이에 오고간 비판과 再비판에 대해 예거Ludwig Jäger는 ‘텍스트 비평 없는 소쉬르 비평’이라고 혹평한다(Jäger 1977).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한 텍스트란 『강의』가 아니라 『강의』의 원자료를 가리킨다. 소쉬르의 비판은 원자료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문헌학자 예거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강의』가 엄밀한 의미에서 소쉬르의 텍스트가 아니라는 비판적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 ‘스승이 만들지 않았고 또한 결코 만들지 않았을 책’에 대한 모종의 의심은 『강의』의 출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Meillet 1916(1978):163). 이러한 의심은 이 책이 오히려 ‘도식적이고’(Meillet 1916:164), ‘엄밀하며’(Meillet 1916:165), ‘단일하고’(Vendryès 1921(1978):167), ‘체계적’(Bloomfield 1924(1978):198)이라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하네스 페르Johannes Fehr는 『강의』의 편집과정이 제기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편집자들이 ‘특별히 독창적인 부분을 그대로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총체적인 구조물의 단편들만을 제공함으로써 스승의 사고를 왜곡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거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구두 강의’라는 독특한 형태에 기인하는 ‘중복’, ‘체인’, ‘변동’, ‘동요’ 등을 텍스트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었다(페르 2002:27-8).

‘구두 강의’가 갖는 가변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강의』는 ‘총체성’을 지닌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된다. 바로 이러한 ‘총체성’이 한 권의 책으로서 『강의』의 텍스트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텍스트성이 20세기 사상사를 이끈 구조주의를 선도한다. 가변적인 요소로 가득 찬 강의에 이러한 총체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구조주의의 고전으로서 『강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퍼시벌W. Keith Percival은 「소쉬르 패러다임: 사실 혹은 환상?」이란 매우 흥미

로운 논문에서 『강의』의 서평을 쓴 저자들이 『강의』에 대해 결코 ‘동정적’이지 않았음을 환기시키고⁶⁾, 한걸음 더 나아가 예스퍼슨Jespersen, 엘름슬레우Hjlemslev, 투르베츠코이Trubetzkoj, 야콥슨Jakobson 등 대부분의 구조언어학자들이 『강의』를 읽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구조주의적 사상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었음을 피력한다(Percival 1981: 34; 36-43). 『강의』와 구조주의와의 영향관계는 따라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사후적이며 간접적이다. 바꿔 말해 『강의』가 구조주의의 영향사적 원인이 아니라 구조주의가 『강의』의 해석학적 원리라는 것이다. 오늘날 소쉬르 읽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원리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퍼시벌은 ‘소쉬르 패러다임’ - 즉 구조주의적인 - 이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왜곡에 대한 모종의 의심은 이제 왜곡에 대한 강한 비판이 된다. 예거는 구조주의자 소쉬르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고 역설한다(Jäger 1977). 그의 비판의 논거는 요컨대 『강의』가 소쉬르의 텍스트가 아니라는 데 있다. 구조주의라고 하는 텍스트성만 있고 텍스트가 없는 『강의』는 결과적으로 소쉬르의 참된 사고를 ‘왜곡’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의』의 소쉬르와 다른, 또 다른 소쉬르를 찾아나서야 한다. 푸에슈에 따르면 이 ‘또 다른 소쉬르’란 ‘수고의 소쉬르’에 다름 아니다(Puech 2005:93). 우리는 『노트』 속에서 바로 이러한 ‘또 다른 소쉬르’를 만나게 된다. 슈발리에 Jean-Claude Chevalier는 이 『노트』를, ‘제어된 『강의』와 매우 동떨어진 이상한 텍스트’라고 규정한다(Chevalier 2002). ‘상상력과, 단지 암시만이 있는 야심 찬 구성, 나아가 유희과 시도에 자리를 내주고 있

6)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자. 예컨대 슈하르트Hugo Schuchardt는 ‘소쉬르는 참다운 시작에서 시작하지 않았다’(Schuchardt 1917(1978):175)라고 비판했으며 블룸필드는 『강의』가 이미 ‘오랫동안 세간에 떠돌던’ 개념들을 ‘체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Bloomfield 1924(1978):198).

는, 끝을 맺지 못한 구멍 뚫린 텍스트’는 ‘『강의』와는 매우 다른 소쉬르, 덜 교육적이며 더 강렬하고, 덜 이상주의적이고 더 암시적이며, ‘더 철학적인’ 소쉬르가 등장한다(Chevalier 2002). 드로와Roger-Pol Droit는 이 『노트』를 ‘매우 짙막한, 때때로 잘려나간 문구들, 미완성된 문장들, 결정적인 장소에서 보류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텍스트로 소개한다(Droit 2002). 『노트』는 이처럼 ‘도식적이고’ ‘엄밀하며’ ‘단일하고’ ‘체계적인’ 『강의』와는 전혀 다른 텍스트이다. 바로 이러한 전혀 다른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소쉬르’와 조우한다. 그런데 글 쓰기의 생생한 과정을 그대로 노출한 소쉬르의 『노트』에는 한 권의 책에 부여할만한 총체성, 다시 말해 텍스트성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문제는 텍스트성이 없는 텍스트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텍스트성 없는 텍스트 이해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총체성’의 유혹이 존재한다. 소쉬르 문헌학자 예거는 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소쉬르를 ‘관념론자’로 규정한다.(Jäger 1976). 반면 아마게르René Amacker는 『소쉬르 언어학Linguistique saussurienne』에서 소쉬르를 ‘정신주의적 유물론자’로 규정한다(Amacker 1975:45). 『노트』의 편집자인 시몬 부케는 『소쉬르 읽기 입문Introduction à la lecture de Saussure』에서 소쉬르의 인식론을 갈릴레이 인식론으로 규정하고, 소쉬르의 이러한 인식론적 기획을 ‘인식론과 형이상학의 종합’으로 요약한다(Bouquet 1997:174). 그에 따르면 『강의』의 편집자들이 범한 오류는 ‘소쉬르의 사고를 단순히 언어학적 인식론으로 환원’하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을 철저하게 검열하고 배제한 것이다(Bouquet 1997:188). 심지어 라스티에는 소쉬르의 가치 개념이 불교의 ‘아포하apoha’(exclusion) 사상과 ‘유추적’ 관계에 있다고 논증한다(Rasiter 2002:132). 소쉬르를 관념론자나 유물론자로 단정하든 아니면 형이상학자로 새롭게 규정하든 이러한 시도의 밑바탕에는 텍스트성이 부재한 텍스트에 텍스트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놓여 있다. 이러한 의도

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의도 없이 소쉬르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가능성은 우리가 앞서 지적했듯이 근본적으로 소쉬르의 글쓰기에 내재해 있는 텍스트와 텍스트성의 변증법에 기인한다.

오늘날 소쉬르의 문헌학적 연구의 과제는 리쾨르의 표현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러한 다양한 ‘해석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와 텍스트성의 변증법을 움직이는 매개는 현대성이란 개념이다. 소쉬르를 읽는다는 것은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회고적인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전망적인 논쟁적 관점에서 소쉬르의 텍스트를 다시 읽고자 한다. 라스티에는 최근에 최소한 유럽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소쉬르에 대한 관심의 재개가 갖는 역사 인식론적 비판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리는 사실상 소쉬르 작품에 대한 재독뿐만 아니라 필경 촘스키주의의 이론적이고 실천적 파산, 인지주의의 기술적인 빈약함, 그리고 일상적 프래그머티즘의 신변잡기에 의해 조장된 소쉬르주의에 대한 관심의 재개에 참여하고 있다(Rastier 2006).

소쉬르에 대한 이러한 재평가 혹은 재독이 가능한 것은 사색적인 그의 글쓰기 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적⁷⁾ 차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테Françoise Gadet는 철학 총서로 기획된 『소쉬르 랑그의 과학Saussure Une science de la langue』에서 이러한 철학적 성찰의 차원을 세 가지로, 즉 언어와 사고의 관계, 언어와 실체의 관계 그리고 의미의 문제 등으로 요약한다. 그에 따르면 ‘이 문제 중 첫 번째는 단지가 가볍게 다루어졌을 뿐이고 두 번째는 단번에 배제되었으며 세 번째만

7) 소쉬르는 한 학생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강의를 ‘철학적 언어학 강의’라고 규정한 바 있다(Godel 1957:30).

이 소쉬르에게 근본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Gadet 1987:4). 주지하다시피 소쉬르는 이 '근본적인' 의미의 문제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소쉬르의 사상 속에서 현대성이란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그의 기호학적 접근이 갖는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께르에 따르면 그의 기호학적 '가르침에 전환점'이 발견되는 장소는 가치의 문제가 제기되는 장소이다. 우리는 바로 소쉬르의 가치 개념 속에서 그의 사고의,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 즉 극단적인 현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기호의 본성에 관한 소쉬르의 가르침의 전환점에와 있다. 제시된 등가성은 물론 막연한데 왜냐하면 인용된 문장 속에서 우리는 단번에 전통적 개념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이행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한 달 뒤에 기호의 이론과 가치의 이론 사이에 연결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Amacker 1975:73).

우리는 전통적 개념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이 가치의 개념을 바탕으로 소쉬르의 언어기호학 사상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가 피력하고자 하는 총체성의 의도, 다시 말해 소쉬르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복원시키려는 우리의 의도는 한마디로 구조주의와 맥락주의를 동시에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쉬르 언어학 사상의 이러한 확대 버전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新 소쉬르주의'(Rastier 2006)의 논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3. 소쉬르의 기호학 개념: 기호에서 가치로

『노트』의 출간은 분명히 소쉬르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앙리 메소넵Henri Meschonnic은 『랑가주Langages』에 기고한

그의 논문 「소쉬르 혹은 중단된 시학」에서 ‘발리와 세체의 『강의』(1916), 고델의 『원자료』(1957), 앵글러의 『비판본』(1967-1974)과 다른’, ‘또 다른 소쉬르’를, 다시 말해 ‘벤베니스트 이전의, 담화 우월적 사상가를 다름 아닌 『일반언어학 노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Meschonnic 2005:10). 『강의』의 텍스트성이 랑그의 언어학이라면 『노트』의 텍스트성은 ‘담화의 시학’이란 것이다. 또 다른 맥락에서, 그러나 동일한 관점에서 프랑수와 라스티에는 ‘소쉬르를 그 자체로서 그 자체를 위한 랑그의 언어학자로 만든’, 결과적으로 ‘파롤의 언어학에 대한 그의 기여를 최소화한 『일반언어학 강의』의 인식론을 단호하게 비판한다(Rastier 2006). 『강의』에서 『노트』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랑그에서 담화로, 랑그의 언어학에서 파롤의 언어학으로 이행한다.

사실 소쉬르의 수고가 발견될 때마다 ‘또 다른 소쉬르’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의 출간은 한 가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소쉬르 언어학이 랑그의 언어학뿐만 아니라 파롤의 언어학에도 동일한 지위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Bouquet 1997:344; Rastier 2006). 아리베 Michel Arrivé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랑그의 언어학 곁에 또한 또 다른 언어학, 파롤의 언어학이 존재한다.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반대로 정확하게 랑그의 언어학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며 필수불가결하다. 왜냐하면 두 대상이 분리불가능하기 때문이다(Arrivé 2006:170-1).

8) 여러 명의 소쉬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을 언급하자. 고델의 『수고 원자료』와 앵글러의 『비판본』의 출간은 급기야 ‘참된 소쉬르’와 ‘거짓 소쉬르’란 대립을 초래하였다.(Jäger 1976). 반면 『아나그램 연구』의 출간은 낮의 소쉬르와 밤의 소쉬르란 또 다른 대립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소쉬르의 『전설에 대한 연구』는 아발Avalle에게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소쉬르의 기호학을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서 인용한 『랑가주』 2005년 9월호의 제목은 『소쉬르에서 출발한 언어학과 담화의 시학』이다. 사실 소쉬르의 언어학 사상 속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화용론적 전망은 소쉬르 문헌학자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단어 속의 단어Les mots sous les mots』에서 스타로빈스키Jean Starobinski(1971)는 소쉬르의 한 노트에서 발견한 담화의 개념에 매우 일찍부터 주목한 바 있다.⁹⁾ 파레트Hermann Parret는 「담화의 표현과 분절Expressivité et articulation du discours」에서 ‘소쉬르 주의’가 정태적 구조주의가 아니라 ‘기호의 산출이나 생성을 위한, 통합적-담론적 활동을 위한, 그리고 랑그의 분절적 창조를 위한’ 착상을 지니고 있음을 갈파한다(Parret 1987:7). 소쉬르 문헌학자 분데를리Peter Wunderli(1988)는 소쉬르의 수고 원자료 속에서 발견되는 ‘행위acte’, ‘활동activité’, ‘행동action’ 등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문헌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소쉬르의 언어학 사상 속에, 오스틴Austin에 의해 정식화된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 등의 개념에 버금가는, 혹은 최소한 이러한 개념들과 모순을 빚지 않은 화용론적 성찰이 분명히 존재함을 역설한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소쉬르의 단편적인 글을 엮어 펴낸 『노트』의 출간은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이러한 의견의 일치는 필연적으로 소쉬르의 언어기호학 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랑그에 못지않게 파롤이 중요하다면 예전대 소쉬르의 기호 개념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소쉬르의 개념적인 기제 속에서 이러한 화용론적인 전망이 가져올, 이론적인 파장의 범위와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소쉬르의 기호 개념과 가치 개념에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우리

9) 관련된 문구를 인용해보자. “담화는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에 의해 언어적 형태를 덧입고 존재하는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단언하는 것에 있다. 반면 랑그는 고립된 개념들만을 먼저 실현시킬 뿐인데 이 개념들은 사고의 의미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 서로 간에 관계 맺음을 기다리고 있다.(스타로빈스키 1971:14).” 소쉬르는 위의 노트에서 담화를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단언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는 『노트』에 산발적으로, 그러나 역설적으로 매우 일관된 방식으로 전개된 소쉬르의 고유한 성찰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1. 「노트 아이템」: 셴므sème, 아포셈므aposème, 파라셈므parasème

비록 이렇게 논의를 한정했다 하더라도 소쉬르의 기호학 사상이 문제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그의 문제의식의 한 복판에 들어서게 된다. 소쉬르의 고유한 기호학적 성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노트 아이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Item. 언어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노트』, p.96)

‘잘못된 상황’이란 ‘어느 한 순간이라도 기호와 의미를 대립시키는 것이 헛된 일’(『노트』, p.96)임을 깨닫지 못하는, 당시 신문법학자들의 상황을 가리킨다. 소쉬르에 따르면 ‘종이의 앞뒤 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채 가위로 종이를 자를 수 없듯이’ 기호와 의미는 처음부터 분리 불가능하다(『노트』, p.93). 이러한 ‘잘못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쉬르가 먼저 제안한 것은 용어법상의 혁신이다. 소쉬르는 『강의』에서 사용한 ‘기호’라는 용어 대신에 ‘셈므sème’라는 새로운 용어의 사용을 제안한다. 이 용어는 ‘기호의 음성적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 사이의 모든 우월성과 최초의 모든 분리를 제거하며 또한 제거하고자 한다.’(『노트』, p.105) ‘그것은 기호의 총체, 즉 일종의 하나의 인격체 속에 결합된 기호와 의미를 표상한다.’(『노트』, p.105).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셴므는 이중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셴므는 표현면에 해당하는 기호와 내용면에 해당하는 의미의, 불가분의 관계로 정의되는 총체로 이루어져 있다. 기호와 의미가 이

처럼 하나의 전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이 사실 ‘정신의 동일한 개념의 두 형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노트』, p.96). 『강의』에서 소쉬르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모두 ‘심적’ 질서에 속한 것으로 규정한다(『강의』, pp.83-5). 이렇게 함으로써 소쉬르는 무엇보다도 일반 기호와 언어기호를 구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호학적 총체성 - 켄트의 이중적 본성 - 을 훼손시키는 모든 작업은 기껏해야 추상화 작업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켄트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소쉬르는 관습성 - 즉, 자의성 - 과 체계성이란 새로운 이론적인 전망을 개시한다.

Item. 기호라는 용어에 비해 켄트라는 새로운 용어가 갖는 차이 혹은 이점.

1. 기호는 비음성적일 수 있다. 켄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호는 직접적인 행위, 즉 체계와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것일 수 있다.

켄트 = 1° 관습적 기호

2° 체계(역시 관습적인)에 속한 기호

3° []

빈 괄호로 남겨진 부분을 제거할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채워 넣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소쉬르의 『노트』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엘름슬레우의 삼분법적 - 도식, 규범, 사용 - 10)구분에 비추어 괄호 안을 ‘사용’으로 채워 넣고자 하는 유혹을 잠시 뿌리쳐보자. 소쉬르는 기호와 켄트를 구분함으로써 일반 기호와 언어기호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켄트가 ‘관습적인’ 이유는 켄

10) 엘름슬레우는 「랑그와 파롤」이란 논문에서 이분법 대신에 삼분법을 제안한다. 그는 순수한 형태의 랑그를 도식으로, 물리적 형태의 랑그를 규범으로, 관행의 총체를 사용으로 각각 정의한다(Hjelmslev L., 1971:81). 엄밀한 의미에서 랑그와 파롤은 도식과 사용으로 재정의 되고 규범이란 새로운 요소가 이 두 항 사이를 매개한다.

를 구성하는, 동일한 심적 질서에 속한 기호와 의미가 주어진 한 언어공동체 속에서 *자의적인*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고, ‘체계적인’ 이유는 이러한 자의적인 결합 방식이 오직 체계의 제약만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쉬르 사상의 극단적인 현대성을 바로 이러한 그의 기호학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사상이 극단적인 이유는 바로 기호학적 단위의 총체성이란 그의 이러한 개념이 기호학적 전통과의 철저한 단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미오시스의 과정, 다시 말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연결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쉼즈의 내적 과정으로 환원된다. 쉼즈는 이중적 본성을 지닌 *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세미오시스 과정의 내재화로 인해 오히려 쉼즈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외부에,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의 실제 상황과 과정에 의존하게 된다.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 보자.

쉼즈와 더불어 시작된 용어법상의 혁신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된다. 소쉬르는 아포쉼즈^{aposème}, 파라쉼즈^{parasème}, 쉼즈^{sôme}, 앙티쉼즈^{anti-sôme} 등을 구분한다. 먼저 쉼즈와 앙티쉼즈에 대한 소쉬르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예거는 이 두 개념을 ‘先기호학적’ 단위로 해석한다(Jäger 1978). 다시 말해 이들은 기호학적 단위로서의 쉼즈에 앞서 존재하는 先기호학적 층위에 해당한다. 소쉬르는 『강의』에서 언어학적 분절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막연한 개념의 한계 없는 평면’과 ‘불확정한 소리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단계를 상징한다(『강의』, p.135). 언어학적 단위 이전의 관념과 소리는 무정형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 『노트』에서 소쉬르는 보다 생생한 비유적인 이미지를 통해 이러한 先기호학적 층위를 예시한다.

기구(氣球)가 바로 쉼즈이고 겔가죽은 쉼즈이다. 이는 기호가 그 자체로 아무 것도 아니더라도 겔가죽이 기호이고 수소가 의미라고 말하는 사고방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기구 조종사에게 그것

이 전부이듯이 언어학자에게는 썸프가 전부이다(『노트』, p.115).

기구는 ‘겉가죽’ 속에도, ‘사람들이 붙어 넣은 수소’ 속에도 존재하지 않은 ‘이중적 본성’을 지닌 *하나*의 기구로서 존재할 뿐이다(『노트』, p.115). 썸프는 기구의 겉가죽에 해당한다. 비록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앙티썸프에 해당하는 수소도 마찬가지다. 오직 고무가죽에 수소를 붙어 넣어 만든 기구만이 기구로서 존재할 뿐이다. 썸프를 떠난 순수 소리로서 썸프나 순수 관념으로서 앙티썸프는 이처럼 추상적인 단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강의』에서 랑그가 ‘무정형의 두 평면 사이에서 구성됨으로써 단위를 형성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신비로운’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강의』, p.135). 파레트는 이러한 ‘무정형의 두 연쇄의 형태 구성’을 생성적 관점에서 조명한다(Parret 1973:6). 예거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기호학적 구성의 과정을 이해의 주체에 의해 행해진 ‘기호학적 종합’으로 해석한다(Jäger 1978). 생성적이든 해석학적이든 이러한 해석은 소쉬르에 대한 구조주의적 독서가 간과한 한 역동적 계기를 부각시키기에 충분하다.

先기호학적 계기를 구성하는, 다시 말해 기호학적 관점에서 다소 부착적인 썸프와 앙티썸프와는 달리 소쉬르는 ‘아포썸프와 파라썸프’가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노트』, p.105).

Item. 아포썸프는 썸프의 음성적 외피이다.

의미의 외피가 아니다.

썸프는 단지 음성과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썸프들과의 상관관계 속에 존재한다.

‘아포썸프’가 ‘의미의 외피’가 아니라 ‘썸프의 외피’인 것은 그것이 *구체적인*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오직 ‘담화’

속에서 존재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다(『노트』, p.105). 먼저 아포셈트가 랑그의 단위가 아니라 파롤의 단위라는 점에 주목하자. 예거는 이런 의미에서 이를 ‘발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실재적인 소리 형태’로 정의한다(Jäger 1978).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셈트의 외피로 존재했던’ 것이다(『노트』, p.107). 시니피앙이 심적 질서에 속한 단위인데 반해 아포셈트는 이처럼 물리적 질서에 속한 단위이다. 하지만 단순한 소리 연속체가 아니라 의사소통 단위로서 존재하는 소리 형태인 것이다. 한마디로 아포셈트의 텔로스telos는 소통이다. 동일한 심적 질서에 속한 기호와 의미의 결합단위로서 존재하는, 통일체로서의 셈트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오직 아포셈트의 형태로서 이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기호에서 셈트로 이처럼 용어법상의 변화가 이루어지자마자 곧이어 이론적인 변화가 뒤따른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라는 여전히 이분법적인 구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원적 본성을 지닌 통일체로서 셈트는 발화 행위를 통해 아포셈트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 아포셈트는 그 자체로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셈트의 ‘음성적 외피’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곧바로 제기된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강의』에서 의미는 시니피앙과의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니피에로서 존재한다. 반면 「노트 아이템」에서 의미는 오직 셈트들 간의 관계, 다시 말해 파라셈트적 관계로 정의된다.

Item. 파라셈트. 랑그에 속한 임의의 한 단어에게 이 첫 번째 단어와 아무런 친족관계조차도 없는 두 번째 단어는 파라셈트가 된다. 파라셈트의 유일하고 단순한 특성은 기호의 동일한 심리적 체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어진 한 기호가 체계의 경쟁적 기호들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존재를 지닌 것으로 발견된다면, 주어진 기호를 위해 경쟁적 기호들의 총체를 관찰할 아무런 중요성도 존재하

지 않는다면 파라셈트란 단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단어가 그것이 속한 체계 속에서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노트』, p.107-8)

‘파라셈트란 단어’가 존재하는 것은 랑그에 속한 단어들이 자율적인 단위가 아니라 경쟁적인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쉬르는 이러한 파라셈트적인 관계에 어떤 논리적 - 동의, 반의, 상위, 하위 등 - 질서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소쉬르는 위에서 ‘임의의 한 단어’와 이와 ‘아무런 친족관계’도 없는 또 다른 임의의 한 단어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메소닉은 바로 이러한 파라셈트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의 논리학이 아닌 ‘담화의 시학’을 발견한다. 셈트들 간에 구축된 이러한 연상적 망은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을 포괄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연상적 관계는 유추적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유추변화는 ‘파라셈트적 창조’이다(『노트』, p.108). 언어는 기호들의 체계라는 소쉬르의 공식은 따라서 언어는 파라셈트들의 체계라는 공식으로 환언될 수 있다. 파라셈트적인 관계는 이러한 랑그의 체계를 보전하기도 하지만 변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는 더 이상 셈트의 내적 구성 요소로서 의미를 언급할 수 없다. 의미는 이제 파라셈트적인 관계의 효과로서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의미는 기호의 ‘안’이나 ‘밖’이 아니라 기호들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는 소쉬르 사고의 극단적 현대성을 바로 이러한 그의 의미론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 의미의 기호를 셈트라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소쉬르는 기호의 내적 구성 요소인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대신에, 한편으로 발화 행위의 외적 실현체로서의 음성 형태에 해당하는 아포셈트와, 다른 한편으로 셈트들 간의 연상적 관계를 나타내는 파라셈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개인적인 발화 행위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괄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샘트적인 관계는 오직 체계에 속한, 다시 말해 파롤이 아니라 랑그에 속한 관계로 고려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제 우리의 관점과 관심을 기호에서 가치로 옮겨보자.

3.2. 가치: ‘상사(相似) : 상이(相異)’ vs ‘상사 - 상사’

오루Sylvain Auroux에 따르면 소쉬르의 가치 개념의 기원은 18세기 동의어주의자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1996:109-113). 『노트』에서 이러한 영향관계는 다음과 같은 소쉬르의 논평 속에 암시되어 있다.

사실 이런 기호의 내용과 저런 기호의 내용 사이에 부정적인 장벽만이 일차적인 자료로 존재할 뿐이다. 그 결과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새로운 관념들은 예컨대 첫째 기호나 혹은 둘째 기호 속에 곧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그 둘 모두에 속하게 된다면 이는 셋째 혹은 넷째 기호와와의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관념들을 철저히 과해치려고 하는 것은 예컨대 알루미늄(*aluminium*)이나 유칼리나무(*eucalyptus*) 등과 같이 물리적적 대상이나 매우 희귀한 대상의 이름에 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완전히 공상적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철(*fer*)이나 떡갈나무(*chêne*)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이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혹은 용법, 이는 동일한 것이다)의 총량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철을 강철(*acier*), 납(*plomb*)이나 혹은 금속(*métal*) 등과 같은 두서너 단어들과 비교하는 것만이, 그리고 떡갈나무를 버드나무(*saule*), 포도나무(*vigne*), 숲(*bois*) 혹은 나무(*arbre*) 등과 같은 두서너 단어들과 비교하는 것만이 무한한 작업을 대신해준다. 정신(*esprit*)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영혼(*âme*)이나 사고(*pensée*)와의 대립을 통해 철저히 과해치거나, 가다(*aller*)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걷다(*marcher*), 지나가다(*passer*), 길을 가다(*cheminer*), 향하다(*se*

porter), 오다(*venir*), 나아가다(*se rendre*) 등과의 대립을 통해 철저히 파해치는 것은 과장하지 않고 평생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15세에서 16세가 지나면 우리는 비단 이 단어들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다른 단어들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다듬어진 의미를 알게 되는데 기호의 긍정적인 가치를 알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들에게 백배나 천배 모자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의미가 가치의 대립이라는 순수하게 부정적인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정신(*esprit*)과 같은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에 경탄했던 동의어주의자(*synonymiste*)는 이 보고(寶庫)가, 이를 사용한 세대들에 의해 언어의 기저에 축적된 성찰과 경험 그리고 심오한 철학의 열매가 아니라면 결코 그 언어 속에 담겨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어느 정도까지 옳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는 않을 터인데 왜냐하면 사실 그것은 어쨌든 부차적이기 때문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은 우리가 순환시킬 어떤 기호체계 속이든 즉각적으로 동의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반대는 불가능하며 대립적인 기호들에 대립적 가치들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가치가 부여되자마자 놀랍게 발생한 관념들 사이의 대립이 다른 한 기호와의 대립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기호 속에, 혹은 한두 기호들과의 대립 속에 존재하는 두서너 개의 기호들 속에 거주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노트』, 77-8).

통사론자 촘스키(1957)는 언어학적 창조성이 3~4세에 완성된다고 본다. 의미론자 자켄도프(1991)는 이보다 조금 늦은 10 세경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호학자 소쉬르는 위에서 15세에서 16세를 언급한다. 유아나 아동의 놀라운 언어능력에 주목한 촘스키나 자켄도프가 선천성의 테제에 집착했던 것과는 달리 소쉬르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가 아동이 아닌 성인의 언어 능력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능력은 라스티에(1991)가 ‘의미론적 지각’

이라고 부른, 의미의 차이를 보는 눈에 다름 아니다. ‘알루미늄’이나 ‘유클리나무’ 등과 같은 매우 전문적인 용어를 제외한다면 단어들이 서로 간에 맺고 있는 연상적 망을 모두 ‘파해친다는 것은 과장하지 않고 평생이 걸릴 수 있다.’ ‘동의어주의자들’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에서 ‘완벽한 동의어란 존재하지 않는다.’(Auroux, 1996:111). 다시 말해 언어에는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차이를 지각한다는 것은 한 단어만이 아니라 이 단어와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다. 동의어주의자들이 언급한 의미의 다양성은 한 단어의 내용이 갖는 다양성이 아니라 단어들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다양성이다. 예컨대 과거 프랑스 상류 사회에서 ‘술 취한’이란 저속한 표현보다 ‘알코올중독’이란 다소 고상한 표현이 더 선호되었다고 한다. 비록 유사한 의미를 지닌 두 용어라 하더라도 이처럼 뉘앙스의 차이 - 예컨대 /저속한/과 /고상한/의 차이 - 가 존재한다. 18세기 지라르 신부는 『동의어 사전』에서 바로 이러한 ‘뉘앙스’의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Auroux, 1996:111). 의미의 과학이란 의미에서 의미론이란 명칭을 처음으로 제안한 역사비교언어학자 미셸 브레알Michel Bréal(1897)은 바로 이 동의성의 문제가 의미론의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동의어 속에서 우리는 한 민족의 사상이 어떤 사물에 대해 천착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리한 지성을 갖춘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구분이 먼저 내려진다. 그 뒤 이 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의 재산이 된다. 정신의 능력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유사한 사물들 간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1897:37-8).

『의미론 시론*Essai sémantique*』에서 이 동의성 문제는 ‘특수성의 법칙’과 더불어 언어의 역사를 지배하는 의미론적 법칙, 즉 ‘재분배의 법칙’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브레알과 마찬가지로 소쉬르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는 동의어주의자들이 제기한 문제이다. 전자가 근본적으

로 역사주의적 관점, 즉 통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 반면에 후자는 이와는 다른 좀더 체계적인 관점, 즉 공시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정신(esprit)’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모두 다 파헤치기가 어려운 이유는 ‘정신’이 뜻하는 바를 모두 다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이 단어를 이와 유사한 다른 단어들, 예컨대 ‘영혼(âme)’이나 ‘사고(pensée)’ 등과 서로 비교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다른 유사한 단어들을 모두 다 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쉬르는 여기서 한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 이 단어가 지시하는 사물이나 개념으로 수직 이동하는 대신에 이 단어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다른 단어들로 수평 이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소쉬르가 언급한 시니피에는 따라서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시니피에를 정의하는 과정은 한 단어의 의미에서 시작해서 다른 단어의 의미로 이행하는, ‘떡갈나무’에서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거쳐 ‘숲’이나 ‘나무’로 확장하는, 한마디로 언어의 바다를 항해하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항해의 여정 속에서 소쉬르가 발견한 개념이 바로 가치의 개념이다.

소쉬르는 1910년에서 11년에 걸쳐 진행된 일반언어학 제 3차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언어학적 가치에 할애한다.¹¹⁾ 『노트』의 마지막 장은 바로 이 마지막 강의에 대한 소쉬르의 노트로 마무리 되어 있다. 다소 긴 전문을 인용해보자.

가치. 이는 모든 가치와 분리 불가능하다. 혹은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a) 체계를 형성하는 일련의 대립적 단위와 분리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며

11) 특히 1911년 6월 27일, 1911년 6월 30일, 1911년 7월 4일에 진행된 세 번의 마지막 강의는 가치의 문제에 할애되어 있다(Eisuke Komatsu & Roy Harris 1993:127-143).

b) []도 아니다.

이 둘은 동시에 그리고 서로 간에 불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치는 두드러지게 매순간 상사 항들의 체계 속에 위치하는 항과 동의어이며 마찬가지로 두드러지게 매순간 교환 가능한 사물과 동의어이다. [] 한편으로 교환 가능한 것을, 다른 한편으로 공-체계적인 항들을 취한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 이 두 사물을 연결 짓는 것이 가치의 고유한 특성이다. 가치의 이 두 측면이 다른지 혹은 무엇 때문에 다른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정신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할 정도로 가치는 이 둘을 연결 짓는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것은 가치가 두 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며 경쟁적으로 이 두 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dissimilia

[<-> similia similia similia similia

상사들이 각자가 자신의 상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른 도표는 따라서 다음과 같다.

similia > similia > similia

similia > similia > similia

반면 이 마지막 평범한 도표는 가치를 자신의 고유한 규칙을 지닌 사물과 유사하게 만드는데 어떤 절대적 실체를 잘못 상징하게 한다.

dissimile

similia <- similia <- simile -> similia -> similia

상사 : 상이의 관계는 상사 - 상사의 관계와 완전하게 다른 것이다. 이 관계는 그러나 포착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 개념의 핵심이기도 하다(『노트』, pp.335-6).

아마겔르는 가치의 이중적 본성, 즉 상사와 상이의 이중적 관계를 기호의 이중적 본성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상사-상사’ 관계를 시니피앙들 간의 관계로, ‘상사 : 상이’의 관계를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로 재해석한다(Amacker 1975:159-60). 아마겔르는 기호의 이중적 본성이 가치 개념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호에서 가치로의 이행을 매우 중요한 계기로 파악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가치의 관계가 기호의 내적 관계가 아니라 기호의 외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소쉬르는 상사들 간의 관계가 ‘가치 개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상사들 각자가 자신의 상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한다. 소쉬르가 제시한 ‘마지막 평범한 도표’에 따르면 ‘상이’는 단 하나의 예만이 등장할 뿐이다. 우리는 이 ‘상이’가 상사들 간의 관계, 다시 말해 파라샘트적인 관계에 의해 산출된 의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상사들 간의 관계가 비단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맥락적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쉬르는 위에서 오직 ‘공-체계적인’ 관계만을 언급한다.

3.3. 가치 결정의 범위: 랑그에서 파롤로

앞서 인용한 문구 속에서 가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임에 주목하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다름 아니라 ‘매 순간’이다. 우리는 가치의 문제와 더불어 바로 이 시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언어의 이중적 본성」이란 제목의, 소쉬르의 오랑주리에서 ‘다시 찾은’ 원고의 마지막 문구를 인용해 보자.

존재하는 각각의 기호 속에서 결정된 가치가 통합되고 사후 형성된다. [] 이 가치는 동일한 순간에 현존 혹은 부재하는 기호들의

총체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이다. 이 기호들의 상호적이고 상대적인 수와 양상은 매순간마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호에 대한 그리고 기호 전체에 대한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한 매순간마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한다(『노트』, p.88).

먼저 가치가 결정되는 방식이 ‘사후’적임에 주목하자. ‘현존 혹은 부재하는’ 언어학적 기호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매순간마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한다.’ 우리는 위에서 가치의 결정이 매순간마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쉬르의 극단적인, 그러나 매우 일관된 주장을 엿볼 수 있다. 순간은 역사적 시간, 즉 통시성을 가리키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되는 시간은 초 미시적인 통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매순간마다 끊임없이 변화’는 가치를 어떻게 포착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순간’이라는 시간의 요소가 개입하자마자 가치의 결정 장소가 더 이상 랑그일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순간’의 시간은 랑그의 시간이라기보다 발화의 순간이요, 베벤니스테E. Benveniste가 언급한 ‘담화의 순간’이기 때문이다(1974:72-73). 가치가 ‘매순간마다’ 변하는 이유는 가치가 ‘매순간마다’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쉬르가 ‘상이’라고 명명한 것은 단지 의미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라스티에는 이런 점에서 파라셈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연상적 셈브’를 ‘맥락적으로 정의되는 언어기호로 이해하자’고 제안한다(Rastier 2006). 다시 말해 파라셈브적인 관계는 체계적임과 동시에 맥락적이다. 앞에서 빈칸으로 남겨진 부분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채워질 수 있다.

셈브 = 1° 관습적 기호

2° 체계(역시 관습적인)에 속한 기호

3° [맥락적 기호]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엘름슬레우가 랑그와 파롤의 이분법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삼분법, 즉 ‘도식’*schéma*, ‘규범’*norme*, ‘사용’ *usage* 등의 구분에 상응하는 소쉬르의 삼분법을 완성할 수 있다(Hjelmslev 1971:81). 소쉬르주의자 엘름슬레우를 통해 우리는 결과적으로 엘름슬레우주의자 소쉬르를 재발견한다. 가치의 결정 장소가 이처럼 랑그에서 담화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계열적 관계에서 통합적 관계로, 다시 말해 기호에서 텍스트로, 나아가 랑그의 언어학에서 파롤의 언어학으로 이행해야 한다.

구조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소쉬르 언어학과 화용론은 양립 불가능한 배타적인 학설들로 간주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소쉬르의 사상은 끊임없이 反화용론적인 것으로 공식화되었고 또한 비판받아왔다. 『소쉬르 읽기 입문』에서 부계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비판을 단행한다.

가치의 통합적 이론과 관련하여, 《파롤》(혹은 《담화》)의 개념을 구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는 소쉬르가 자신의 프로그램 속에서 통사론적 능력, 언어 화용론적과 담화 분석의 이론들을 가능하게 하는 고유한 인식론적 개념을 제기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정 반대이다. 《현존적 가치*valeur in presentia*》의 개념은 이러한 언어학적 프로그램들을 묘사한다(Bouquet 1997:344-5).

‘현존적 가치’는 ‘매순간마다’ 결정되는 가치를 가리킨다. 언어에 대한 소쉬르의 집요한 성찰 속에서 놀랍게도 시간의 문제는 항구적인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Choi, 2002). 소쉬르의 언어학 사상은 비역사적인 것도 반화용론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이 시간의 문제,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담화의 순간’이란 개념을 매개로 소쉬르의 언어학 사상이 구조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화용론과 겪었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구조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소쉬르의 가치 개념이 오직 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일반언어학 노트』에 노정된 소쉬르의 성찰 속에서 우리는 사실상 가치 결정의 범위가, 시간의 요소가 개입함에 따라 랑그에서 담화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쉬르의 가치 개념은 화용론, 담화 분석, 나아가 라스티에가 정식화한 텍스트 의미론과도 모순을 빚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4. 텍스트 의미론과 소쉬르의 새로운 전통-물질적 해석학

우리는 라스티에의 텍스트 의미론을 새로운 소쉬르의 전통으로, 다시 말해 구조주의와 맥락주의를 동시에 사고하는 구조주의의 확대 버전으로서 재평가하고자 한다. 라스티에는 코세리우Coseriu, 포티에Pottier, 그레마스Greimas로 이어지는 구조의미론을 화용론적 시각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텍스트 의미론의 해석학적 인식론을 구축한다(1987, 1997, 2001). 그런데 그에 따르면 텍스트 의미론의 인식론은 소쉬르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1997:134).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빚은 크게 세 가지이다. 소쉬르는 시니피에를 지시나 개념에 의존하는 비언어학적 관계가 아니라 순수하게 언어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시니피에뿐만 아니라 시니피앙을 기호의 구성요소로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정신적 표상이나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고유한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한마디로 소쉬르는 의미 관계를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시각에서 재정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이 라스티에의 평가이다.

소쉬르의 공헌이 이처럼 의미의 언어학적 차원을 정의한 것이라면 라스티에의 공헌은 여기에 텍스트적 전망을 복원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텍스트적 전망이란 계열적 관계에서 통합적 관계로, 기호에서 텍스트로, 언어능력에서 기호학적 수행으로의 이행을 가리킨

다. 라스티에는 예컨대 소쉬르의 가치 개념에 바탕을 둔, 구조의미론의 핵심 개념인 의소sème - 의미자질 - 를 바로 이러한 화용론적인 시각에서 재정의한다. 여기서 언급한 화용론pragmatique이란 좁은 의미에서 언어행위이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실천행위와 관련된 넓은 의미에서 행위론praxéologie - 상황이나 맥락뿐만 아니라 규범에 따른 행위를 포괄하는 - 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제시한 외래성afférence 개념은 랑그의 체계 속에서 결정된 가치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기호학적 수행performance sémiotique’에 의해 결정된 가치이다(2001:72).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소쉬르의 파라셈프는 라스티에가 세분한 내재의소와 외래의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라스티에는 바로 이 외래성 개념을 바탕으로 의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해석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 패러다임 속에서 표상 개념에 기초한 지시 관계는 텍스트가 재구성한 지시적 인상의 문제로 재평가되며, 추론의 문제는 해석적 과정으로 재정의 된다. 의미의 문제는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지시나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텍스트 속에서 시니피에들의 관계 망’으로 재정립된다(Rastier 1997:127). ‘지시적 인상’이란 파라셈프적 상사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의미효과로서 상이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관계 망’, 즉 텍스트적 세미오시스 는 형식적이든 경험적이든 실재론에 근거한 존재론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텍스트가 산출되고 해석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재구축되어야 한다. 즉, ‘존재론ontologie’이 아니라 ‘의무론déontologie’에 종속된다. 소쉬르가 언급한 담화의 ‘매순간’은 기호학적 수행의 한 기원일 뿐만 아니라 가치 결정의 장소로서, 해석학적인 맥락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존재론이 아닌 의무론적 시각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소쉬르의 인식론은 이처럼 의미의 언어학적 시각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라스티에가 주장한 언어학적 의미의 텍스트적 전망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라스티에는 소쉬르의 전통을 혁신적으로 계승한 텍스트 의미론을 해석학적 과학으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텍스트 의미론의 인식론은 해석학이다. 살란스키Jean-Michel Salanskis(1997)는 랭게커의 인지 도식, 빅토리Victorri와 스몰렌스키Smolenky-레장드르Legendre-미야타Miyata의 연결망 이론 등과 더불어 라스티에의 텍스트 의미론을 언어학 분야에서 해석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주요 경향으로 소개한다. 라스티에는 블룸필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미의 자연화’(1997: 121)에 대항하는 비판적 인식론으로 해석학적 입장을 강변한다.

라스티에가 주장하는 해석학은 요컨대 ‘물질적 해석학Herméneutique matérielle’이다(2001). 이 용어는 존디Peter Szodi가 슬라이허마허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비판적 해석학의 충만하고 야심 찬 형태’로서의 해석학을 의미한다(Rastier 1997:122). 라스티에는 이 용어를 기호학적 인식론으로 재해석한다. 기호학적 측면에서 ‘물질적’이란 용어는 육체를, ‘해석학’이란 용어는 정신을 가리킨다. 이 둘은 기호의 양면인 표현과 내용에 각각 상응한다. 다시 말해 물질적 해석학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기호 모델로부터 인식론적 모델을 차용한다. 이 모델에 근거하여 라스티에는 현대 해석학의 정신주의적 경향과 문헌학의 형식주의적 경향을 각각 비판한다. 그가 통합적인 기호 모델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두 경향이 ‘물질적 해석학’으로 재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해석학은 언어의 형태분석에 집착한 문헌학과 딜타이Dilthey 이후 전개된 철학적 해석학과 재통합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해석학이다. 한편으로 그가 진단하기에 현재 언어과학은 역사와 텍스트의 문제를 핵심 문제로 삼고 있는 해석학적 전통과 단절되어 있다(1997:125). 그 결과 언어과학이 기술대상으로 삼고 있는 언어는 역사적 전망이 결여된 추상적인 체계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대부분 언어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해낸, 예문으로 제

시된 문장은 오직 문법성grammaticalité이나 수용 가능성acceptabilité의 시각에서 다루어질 뿐 해석 가능성interprétabilité의 시각은 여기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맥락과 동떨어져 있는 문장은 생성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해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처럼 텍스트의 산출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문장들은 형식적인 규칙의 지배를 받지만 해석학적인 이해의 대상일 수는 없다. 상술한 현대 언어학의 입장과 텍스트 의미론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언어학	텍스트 의미론
문법성grammaticalité (수용 가능성)	해석 가능성interprétabilité
언어능력 = 생성능력(génération)	언어능력 = 해석능력(interprétation)
공리화axiomatisation	토대fondement
규칙règle	규칙성régularité
원인cause	조건condition

다른 한편으로 현대 해석학은 구체적인 언어현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형이상학에만 몰두해 있다고 라스티에는 비판한다. 문헌학적인 우회를 포기하고 직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한 철학적 해석학은 반과학으로 전락한다. 언어학 혹은 문헌학이 객관주의와 형식주의에 집착함으로써 실증주의로 퇴화한 반면에 이처럼 하이데거식 해석학은 사변에만 의존함으로써 퇴화했다고 하는 것이다(Rastier1997: 123). 소쉬르적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언어과학을 비롯해서 그동안 문헌학이 기호의 육체적 측면, 즉 ‘시니피앙’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철학적 해석학은 정신의 측면, 즉 ‘시니피에’만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라스티에가 주장한 ‘물질적 해석학’은 따라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새로운 결합을 위한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다. 소쉬르는 기호를 행동주의자들처럼 시니피앙이나 혹은 인지주의자들처럼 시니피에만으로 환

원하지 않는다. 셈프라는 새로운 용어의 도입에서 알 수 있듯이 소쉬르의 기호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통일된 전체이다. 라스티에가 주장한 ‘물질적 해석학’이 형태중심의 문헌학과 철학적 해석학과의 재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텍스트 의미론의 인식론을 기호와 의미의 통일된 전체로서의 셈프를 상징한 소쉬르 언어기호학의 확대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례 없는 미디어 문화의 발전은 오늘날 우리를 텍스트의 바다로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는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텍스트를 날마다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언어학과 텍스트의 만남은 이제 필요가 아니라 필연이며 과제가 아니라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가치들의 놀이의 장을 랑그에서 텍스트로 확장한 신소쉬르주의는 이들의 생산적인 만남에 필요한 인식론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소쉬르 언어사상의 현재적 의의가 놓여 있다.

참고 문헌

1. 국내 참고 문헌

- 라스티에 저, 최용호 역, 2006, 「소쉬르의 미래 수고의 재발견과 새로운 수용 - 소쉬르 다시 읽기 입문」, 소쉬르 언어사상의 현재적 의의, 서울대 언어연구소 2006년 제 2회 워크숍.
- 미셸 아리베, 2006, 「과물, 담화, 랑가주」,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 요하네스 페르저, 최용호 역, 2002, 『소쉬르, 언어학과 기호학 사이』, 인간사랑.
- 소쉬르 저, 최승언 역, 1990,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 최용호, 2004, 『텍스트 의미론 강의』, 인간사랑.

2. 국외 참고 문헌

- Amacker R., 1975, *Linguistique saussurienne*, Genève - Paris, Droz.
- Auroux S. et al., 1996, *La philosophie du langage*, Paris, Puf.
- Benveniste E., 1974,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2, Paris, Gallimard.
- Bloomfield L., 1924, *Compte rendu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Modern Language Journal* 8.
- Bloomfield L., 1933/1935, *Lang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Bouquet S., 1997, *Introduction à la lecture de Saussure*, Paris, Payot.
- Bréal M., 1897, *Essai de sémantique la science de la signification*, Paris.
- Chevalier J.-C., 2002, Un destin étrange, *La quinzaine littéraire*, du 16 au 28 Février 2002.
- Choi Y.H., 2002, *Le problème du temps chez Saussure*, Paris, Harmattan.
- Droit R.-P., 2002, L'angoisse du chercheur face au vide, *Le monde des livres*, vendredi 8 Février 2002.
- Eco U., 1992(1996), *Interprétation et surinterprétation*, Paris, Puf
- Engler R., 1967,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édition critique par Roudolf Engler, ff. Wiesbaden: Otto Harassowitz.
- Engler R., 1974,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Notes de F. de Saussure sur la linguistique générale*, édition critique par Roudolf Engler, tome 2, fascicule 4, Wiesbaden: Otto Harassowitz.
- Gadet F., 1987, *Saussure Une science de la langue*, Paris, Puf.
- Godel R., 1957, *Les sources manuscrites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Genève, Droz.
- Grisoni D.-A., 2002, Ce que parler veut dire, *La vie*, jeudi 21 Février

2002.

- Hjelmslev L., 1971, *Essais linguistiques*,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 Jackendoff R., 1991,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 Jäger L., 1976, Ferdinand de Saussures historisch-hermeneutische Idee der Sprache, in *Linguistik und Didaktik* 27.
- Jäger L., 1977, Saussure-Kritik ohne Text-Kritik, in *Zeitschrift für grammatische Linguistik* 5.
- Jäger L., Ferdinand de Saussures semiologische Begründung der Sprachtheorie, in *Zeitschrift für grammatische Linguistik* 6.
- Jannoud C., 2002, Saussure, les inédits du père du structuralisme, *Le Figaro littéraire*, jeudi 28 Février 2002.
- Komatsu E. & Harris R., 1993, *Troisièm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0-1911) D'après les cahiers d'Emile Constantin*, Oxford New York Seoul Tokyo, Pergamon Press.
- Maggiori R., 2002, L'apport de Saussure, *Libération*, jeudi 14 Février 2002.
- Martinoir F. de, 2002, Saussure, sorti du silence, *La croix*, Jeudi 21 Février 2002.
- Meillet A., 1916, Compte rendu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Bulletin de la société linguistique*.
- Meschonnic H., 2005, Saussure ou la poétique interrompue, in *Langages* 159 septembre 2005, Paris, Larousse.
- Normand Cl., 1978, *Avant Saussure*, Choix de textes (1875-1924), Bruxelles: Complex.
- Parret H., 1987, L'expressivité et l'articulation du discours, in *Prolégomènes à la théorie de l'énonciation De Husserl à la*

- pragmatique*, Berne Francfort-s. Main New York Paris, Peter Lang.
- Percival W. Keith, 1981, The saussurean paradigm: Fact or fantasy?, *Semiotica* 36 - 1/2.
- Puech Ch., 2005, L'émergence de la notion «discours» en France et les destins du saussurisme, in *Langages* 159 septembre 2005, Paris, Larousse.
- Rastier F., 1987, *Sémantique interprétative*, Paris, Puf.
- Rastier, F., 1989, *Sens et Textualité*, Paris, Hachette.
- Rastier F., 1993, La sémantique cognitive Eléments d'histoire et d'épistémologie, in *Histoire Epistémologie Langage* 15/1, Paris,
- Rastier F., 1997, Herméneutique matérielle et sémantique des textes, in Salanskis J.-M., Salanskis, F. Rastier, R. Scheps, *Herméneutique: textes, sciences*, Cerisy, Paris, Puf.
- Rastier F., 2001, *Arts et science du texte*, Paris, Puf.
- Rastier F., 2002, Saussure, la pensée indienne et la critique de l'ontologie, *Revue de Sémantique et pragmatique* numéro 11, P.U.O.
- Rastier F., 2006, Saussure au Futur Ecrits retrouvés et nouvelles réceptions - Introduction à une relecture de Saussure, texte inédit.
- Salanskis J.-M., 1997, Herméneutique et philosophie du sens, in Salanskis J.-M., Ratier F., Scheps R., (1997), *herméneutique: textes, sciences*, Paris, Puf.
- Salanskis J.-M., Rastier F., Scheps R., 1997, *Herméneutique: textes, sciences*, Paris, Puf.
- Saussure F. de,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 Saussure F. de, 1964, *Lettres de Ferdinand de Saussure à Antoine Meillet*, par Emile Benveniste, in *CFS* 21.
- Saussure F. de, 2002, *Ecr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 Rouldolf Engler et Simon Bouquet, Paris, Gallimard.
- Séchehaye A., 1917, *Compte rendu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Revue philosophique*, juillet.
- Starobinski J., 1971, *Les mots sous les mots*, Paris, Gallimard.
- Vendryès J., 1921, *Compte rendu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Journal de psychologie normale et pathologique*.

Ecrit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u signe à la valeur

-Tension entre textualité sans text et text sans textualité-

Choi, Yong-Ho

Cet article vise à remettre au point le Saussurisme à partir des manuscrits saussuriens recueillis dans un ouvrage intitulé *Ecrit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ans lequel on peut trouver parmi tant d'autres un manuscrit retrouvé à l'Orangerie de Saussure à Genève, portant sur la «Double nature du langage». La publication des *Ecrits* en 2002 relance un débat sur la modernité de la pensée sémio-linguistique de Saussure. Avant d'examiner le sens de cette modernité radicale caractérisant la démarche épistémologique saussurienne, nous nous permettons d'attirer l'attention sur la question de lecture qui se pose sans cesse en termes de tension, celle entre textualité sans texte et text sans textualité. Notre idée est que, alors que le *Cours* se comprend comme textualité – structuralisme comme principe interprétatif – sans texte, les *Ecrits* sont un texte sans textualité. Nous nous proposons de recourir à la notion de modernité radicale pour relancer la dialectique inhérente à cette tension. C'est le parcours interprétatif «du signe à la valeur» que nous mettons en route qui servira de fil conducteur à la remise au point de la pensée sémio-linguistique de Saussure. Notre propos est de montrer, voire démontrer la possibilité de réconcilier le structuralisme avec le

contextualisme dans le cadre de la théorie étendue de la valeur saussurienne.

열쇠어: 텍스트, 텍스트성, 기호, 가치, 파롤, 텍스트 의미론, text, textuality, sign, value, parole, textual semantics

투고일: 2006.04.25/ 심사일: 2006.05.19/ 심사완료일: 2006.05.26